



농림부

전북 익산 AI발생지역 방역조치 해제

농림부는 지난해 11월말 시가 발생한 전북 익산 시방역지역에 대해 그 동안 취해 왔던 가금 및 그 생산물의 이동제한, 통제초소 운영 등 방역조치를 2007년 1월 29일부터 모두 해제키로 했다고 지난 1월 26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익산 시 방역지역은 발생농장 반경 500m내(오염지역) 가금류의 살처분이 완료(2006. 11. 30)된 날부터 30일이 경과되었고, 반경 10km내 경계지역의 오리에 대한 정밀검사(닭은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등 '시 방역실시요령' 상의 이동제한 해제 요건이 충족되어 방역조치를 해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 발생농장을 포함 살처분을 실시한 농장에 대해서는 발생농장의 시 병원체의 잔존여부 검사 등 입식시험(2일간)을 실시하여 재발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금을 다시 사육할 수 있게 되며, 해당 농장에게는 가금 입식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10일 시가 발생한 김제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방역조치 해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는 그 동안 시 방역조치로 불편을 겪었던 익산 지역 주민들께 고통을 분담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불행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장 방역활동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고시 개정(안) 공포

농림부는 등급판정 실시로 인한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 등 사회적인 이득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등급판

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닭고기등급판정수수료를 새로이 징수하고자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닭의 경우 등급판정수수료는 7천수 기준으로 7만원(1일 7천수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수당 8원 가산, 1만수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수당 6원 가산)이 책정된다.

소, 소부분육, 돼지, 계란의 등급판정수수료는 현행과 같다.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개정〉

대상품목	현행	개정	비고
소	2,000원/1두	-	1두 기준
돼지	400원/두	-	1두 기준
닭	-	7만원/7천수 (7천수 초과시 8원/마리, 10천수 초과시 6원/마리)	7천수 기준 부분육1kg=1수
계란	50천원/50천개 (기준초과시 1원/개)	-	50천개 기준
소부분육	300원/1박스	-	1박스 기준

■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 제명 변경

앞으로는 '축산물의 소비축진 등에 관한 법률' 제명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농림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법의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이라는 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 I' 94P 참조.

■ 설 선물, 우리 농식품 선물 주고 받기 캠페인 전개

“올해 설 선물은 우리 농식품으로 하세요!”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전국 3,000여 곳의 기업체 등에 친필 편지를 보내는 등 우리 농식품의 판매 일선에 나섰다.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에도 대기업 방문과 판매촉진 홍보 등을 통해 농식품 판매증가는 물론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인 바 있다.

농림부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설 선물 우리 농식품으로 주고받기 캠페인’을 오프라인 홍보물 배포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적극 전개하고 있다.

박홍수 장관은 지난 1월 26일 경제단체, 기업체, 행정기관 등에 보낸 서한을 통해 “올해 설 선물은 농업인의 땀과 장인 정신이 배어있는 우리 농식품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설 선물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수 농식품 목록이 담긴 카달로그도 동봉했다.

카달로그에는 과일, 전통주, 한과류, 전통식품류, 축산물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등 우수한 우리 농식품 구러미가 다양하게 수록돼 있다.

오프라인 홍보와 더불어 2월부터는 G마켓, 옥션 등 유명 쇼핑몰에 ‘우리 농식품 선물하기 캠페인’을 실시해 쇼핑몰 이용 네티즌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장인을 타겟으로 지하철 무료일간지 ‘metro’와 함께 캠페인도 펼친다.

■ 동물학대 벌금 최고 500만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이 최고 20만 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또 애완동물(반려동물)에 이름과 주소 등이 적힌 인식표를 붙이지 않고 외출했다가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부는 지난 1월 8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것,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동물 학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벌금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높였다.

학대행위가 금지되는 동물에는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들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동물을 버리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굶기는 행위, 병든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시·도의 경우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 인식표 부착과 함께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이를 수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록제도를 도입해 판매업자와 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맞춰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제정될 예정이나 실제 적용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농립 R&D 산업화·실용화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농림부는 농립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술력을 성장 동력원으로 하는 농림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농립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농립기술개발사업은 지난 10년간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농업인의 기술적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해 온 결과, 농가소득향상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농립기술개발사업의 성과분석 결과 2005년말까지

기술개발이 완료된 2,832과제 중 522과제가 기술이전(이전율 18.4%)되고 1,644건의 기술이 특허출원 또는 등록되는 등 기술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림 R&D분야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민간의 연구능력을 배양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첨단 생명공학의 농림업 이용과 첨단기술의 산업화 노력이 부족한 것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었다.

농림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화실용화 중심 기술개발, BT·NT·IT 등 첨단기술의 실용화 지원 확대, 연구관리전문기관 설립과 농림분야 R&D 사업 조정기능 강화, 일몰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추진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산업체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산업화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핵심전략·현장적용·농산업 기술개발 등 기존 3개 세부사업체계를 공모유형에 따라 기획과제(지정공모형)와 일반과제(자유응모형)의 2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중대형 프로젝트형 기획과제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농림 R&D 수요충족을 위해 기존 경종, 원예, 축산 등 품목중심의 11개 기술분야를 '고품질·친환경·고기능성' 등 기능 및 수요자중심의 4개 기술분야로 개편했다.

아울러 전문 연구기획 역량과 평가기능의 강화를 위해 농림기술관리센터를 농림부 산하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한편, 매년 연구성과 평가에 따라 지원기간 및 연구비를 조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 1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펀드3호 결성 완료

농림부는 지난 1월 16일 제3호 농업전문투자펀드(펀드명 : MAF-넥서스 농업전문투자펀드)를 중소기업청에 등록함으로써 조합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농기업 투자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3호 펀드의 투자실행 등을 책임지는 업무집

행조합원은 농업바이오분야에 투자경험이 많은 (주)넥서스투자에서 맡게 된다.

제3호 펀드는 총 100억원 규모로 결성되었으며, 이중 농림부가 40억원, 농협산업은행 등 민간이 60억원을 출자했다.

투자실행에 있어서는 전문심사역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농기업을 평가선정하고 투자심사위원회가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투자이후 컨설팅도 함께 실시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 청산한 2호(한국바이오 기술)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147.5%를 달성했다"며, "3호 펀드도 블루오션인 농업 분야의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농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AI 보상금·수매대금 총 116억 확정

전북지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보상과 수매액이 11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전라북도 축산당국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보상액은 부화장 계란 폐기가 53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가금류 살처분 37억7천여만원이다.

이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가금류 수매로 15억8천여만원이 지급됐거나 지급예정에 있어 익산과 김제 지역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보상금과 수매대금이 모두 116억원에 이르고 있다.

관세청

냉동 닭발 '설육'으로 분류, 27% 관세율 적용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지난 1월 24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어 냉동닭발, 냉동어류 피레트, 아크릴쉬트, 주파수합성기, 직류전원공급기, 메탈할라이드 램프, 디지털 카메라용 TFT-LCD 모듈 등 7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했다고 2월 1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 안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냉동 닭발이었다.

이 물품은 닭의 발가락이 붙어 있는 바로 윗부분 마디를 절단해 냉동한 것으로서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독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다.

관세 품목분류상 '냉동 닭의 절단육'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 20%가 적용되고, '냉동 닭의 설육'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27%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물품이 닭의 정강이뼈 아랫부분인 발목관절을 절단(발가락이 붙어 있음)해 냉동한 것으로서 문헌이나 관련기관에서 규정한 닭발의 범위(발가락부분에서 발목관절까지)에 포함된다"며, "관세법상 식용으로 적합한 동물의 발을 설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물품을 냉동 닭의 설육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설날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축산물 성수기인 설날을 맞이하여 오는 2월 16일까지 축산물 생산·유통업체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축장,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포장처리하는 업소, 축산물을 판매하는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재래시장의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강제급수 및 농가 등에서의 소, 양 등 불법도살 행위,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 행위, 보존의 적정성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여부, 부패·변질 축산물의 보관·진열·판매여부,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하게 된다.

검역원 관계자는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유통·판매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

로, 부정·불량축산물은 1588-9060번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홈페이지 : www.nvrqs.go.kr

■ 불법 휴대 동물축산물 137건 범칙금 부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휴대 동물축산물 137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특히, 죄질이 나쁜 '베트남산 원숭이 불법반입 사건', '이탈리아산 카나리아 불법반입 사건', '인도네시아 원숭이 위장반입 사건' 등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했다.

이는 해외여행객 등의 증가 추세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불법 휴대 동물축산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이다.

인천국제공항 국경검역을 총괄하고 있는 임경중 인천지원장은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검역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면서, "함부로 외국에서 동물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범칙금 부과는 물론 자칫 검찰기소가 될 수 있으므로 꼭 적법한 절차와 검역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년간 단속내역을 보면 반입 국가(수출국)별로는 중국 53건, 몽골 41건순이었으며,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소시지 76건, 장조림, 육포 등 31건순으로 주로 수입이 금지된 국가로부터 축산물 등이 불법반입(은닉)되어 오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연구소

이상진 신임소장 취임

농촌진흥청은 지난 1월 1일자로 이상진 전 축산자원개발부장을 축산연구소 소장으로 임명했다.

신임 이상진 소장은 1955년 경남 고성출생으로 경상대 축산학과를 나와 1977년 축산연구소 연구사로 첫발을 내디딘 후 축산시험장 기금과와 축산기술연구



이 상 진 소장

소 대전지소장을 지냈으며, 종축개량부 기금과장과 축산연구소 축산자원개발부장을 역임했다.

이 소장은 특히 지난 2003년 백색육(White meat)인 닭고기의 우수성 홍보로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양에서 유입된 '화이트데이(White day)'를 우리식 '白日(4월 9일)'과 '구구day(9월 9일)'로 정하자는 제안과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당시 대전지소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구구데이 행사가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어 닭고기 소비홍보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 출입 언론인 간담회 개최



축산연구소는 지난 1월 11일 연구소 강당에서 연구소 출입 언론인 및 부서별 홍보담당

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07년 축산연구소 미션 및 주요업무성과 소개와 금년도 각 부서별 중점(기획) 홍보 추진계획 발표 및 참석 언론인들과 소장과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2007년은 축산연구소 19대 이상진 소장 취임과 3기 책임운영기관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이번 간담회는 신임소장과 연구소 출입 언론인과의 상견례를 겸해서 이루어졌다.

이상진 신임소장은 "축산연구소는 매년 수많은 연구업적을 도출하고 있지만 연구결과에 비해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축산연구소에서는 금년초 채용한 홍보전문가를 적

극 활용할 계획이며, 연구소 출입 언론인 여러분들의 더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홍보역량 강화 위해 방송사 출신 홍보전문가 채용

우리나라 축산분야의 메카로서 세계화를 선언한 축산연구소는 그동안 축적된 연구성과와 개발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와 영농현장에 적극적으로 보급·홍보하기 위해 방송사 출신 홍보전문가 김원구씨를 채용했다.

이번에 채용된 김원구 홍보전문가는 공직과 방송사에서 재직하면서 다양한 홍보경험을 했으며, 공직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책홍보와 일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홍보업무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적임자로 축산연구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연구소 이상진 소장은 "홍보전문가의 주요업무는 선진기법을 통한 축산홍보 콘텐츠 개발, 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고객서비스(PCRM)의 효율적인 운영 및 언론기관을 통한 대국민 홍보로, 기존의 틀을 깨뜨릴 도전적이며 공격적인 세일즈 홍보가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취원각 복원 기념식 개최



축산연구소는 지난 1월 25일 충남 성환 소재 축산자원개발부 내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별장으로 보존

해오던 취원각(翠遠閣)의 복원(復元) 기념식을 가졌다.

취원각은 본래 1907년 직산에 있던 고가를 이전한 것으로 1945년 이승만 초대대통령의 별장으로 지정 보존되어 오다가 1968년도에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축산시험장 방문시 취원각 정원에서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기도 했던 장소로서, 이후 한동안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근년에는 건물 노후에 따른

